

7세기 초 백제의 對隋 군사외교와 史書의 인식

윤 경 진*

- I. 머리말
- II. 598년 隋의 고구려 원정과 백제의 대수 외교
 - 1. 598년 수의 고구려 원정
 - 2. 백제의 軍導 요청 배경과 의미
- III. 607-612년 백제의 군사외교와 史書의 인식
 - 1. 607년의 군사외교와 ‘與高麗通和’
 - 2. 611-612년의 군사외교와 ‘實持兩端’
- IV. 맺음말

국문초록

이 연구는 7세기 초 백제의 對隋外交의 실체와 그에 대한 史書의 인식에 대해 검토한 것이다. 수는 598년 고구려 원정에 나섰으나 遼河에 이르러 수위 상승과 보급 차질 등으로 성과 없이 철군하였다. 그런데 『隋書』高麗傳에는 요하 도달로 고구려가 사죄한 것처럼 편집하였다. 이것은 원정의 성과를 드러내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백제는 수의 원정에 편승하여 軍導를 청하였다. 이는 재개될 원정에 맞추어 새로운 전략을 제안한 것이었으나 수 문제는 고구려의 사죄를 이유로 거부하였다. 고구려의 사죄와 백제의 요청은 내용 전개로 볼 때

* 경상국립대학교 사학과 교수 / kjyoon@gnu.ac.kr

모두 600년의 일로 파악된다.

백제는 607년 다시 수에 고구려 원정을 청하였으며, 양제는 이를 수락하고 고구려의 동정을 살피도록 하였다. 『수서』에는 백제가 挾詐하며 중국을 엿보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수서』 찬자가 ‘麗濟連和’의 관점에서 백제의 행위에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또한 백제는 611년 고구려 원정이 가시화되자 軍期를 청하였고 원정이 단행된 612년에는 직접적인 군사행동도 도모하였다. 이에 대해 『수서』는 “實持兩端”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는 당시 백제가 신라 공격을 도모한 것이라는 데 근거한 것이었다. 『삼국사기』는 당시 상황에 대해 『수서』 기사를 채록하면서 의혹 부분은 모두 삭제하였다. 이는 국내의 전승 자료를 채록한 같은 시기 신라의 청병 사적에 사실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 주제어

백제의 對隋外交, 三國史記, 隋書, 遼河, 麗濟連和

I. 머리말

대중국 외교는 삼국의 성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과정이었다. 삼국은 저마다 중국 왕조와 사대외교를 통해 체제 정비를 위한 문물의 도입을 도모하였고, 한편으로 중국 왕조를 이용하여 상대를 군사적으로 견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구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외교에 나선 나라는 백제였다.

고구려는 영토 확장과 함께 요하를 경계로 중국 왕조, 또는 북방 세력과 대치함으로써 교류와 대립의 양면이 공존하였다. 신라는 6세기 중반 한강 유역에 진출하면서 비로소 본격적인 통교에 나선 탓에 중국의 입장에서 외교적 비중이 높지 않았다. 반면 백제는 중국과 경계를 맞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군사적 긴장의 부담 없이 교섭에 나설 수 있었다. 백제는 이른 시기부터 남조 국가와 통교하는 한편, 북조 국가를 통해 고구려를 견제하고자 하였다.

이후 隋가 남북조를 통일하면서 삼국의 대중국 외교도 전기를 맞게 되었다. 통일 왕조는 국제관계에서도 자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 수립을 지향하였고, 이로 인해 중국 왕조와 대치하던 고구려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졌다.¹⁾ 백제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군사외교를 강화하였고 백제와 고구려의 갈등도 고조되었다.

출발은 늦었지만 신라 또한 대중국 외교를 통해 자국의 현안을 풀어가하고자 하였다. 특히 한강 진출 이후 백제와의 갈등이 깊어짐에 따라 이를 해결하려는 외교적 노력이 경주되었다. 이것은 결국 7세기 중반 唐과의 연합을 통해 백제와 고구려를 공멸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양상으로 인해 그동안 7세기 전반을 중심으로 삼국의 대중국 외교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저간의 연구는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방법론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발견된다. 그것은 바로

1) 고구려는 당초 隋와 조공-책봉 관계를 수립했으나 수의 대외정책 변화에 따라 대수관계를 단절하고 세력 확장을 도모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여호규, 「6세기말-7세기초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 『역사와현실』 46, 2002).

당시 상황을 담은 여러 史書 사이에 보이는 내용 차이와 변형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²⁾

외교는 자국 중심의 인식이 가장 두드러진 분야이다. 자국에 유리하게 상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해당 시기에 이미 편향된 시각에 따른 서술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후대에 편찬된 사서는 편찬 당시의 시각에서 과거 사적을 이해함으로써 또 다른 편향과 왜곡을 낳을 수 있다. 사서 자체의 편향은 아니어도 후대의 인식에 의해 만들어진 자료가 채록될 경우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같은 상황에 대해 사서마다 설명 내용과 맥락이 다르거나, 같은 사서 안에서 편목마다 내용이 다르게 서술되는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런 경우 자료의 선택과 활용에 앞서 비교와 분석을 통한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 최근에 이러한 작업이 시도되며 성과를 내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이른바 “麗濟連和” 문제를 들 수 있다.

‘여제연화’란 7세기 초중반 백제와 고구려가 연대하여 신라를 침탈하였다는 것으로, 신라가 당과 연합하여 양국을 공멸하게 되는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내용은 『삼국사기』와 중국 자료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별다른 의문 없이 받아들여졌으며, 7세기 동아시아 정세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도 바탕이 되었다.³⁾

그러나 고구려와 백제의 연화는 신라의 외교적 목적에서 가공된 내용이라는 지적이 나온 이래,⁴⁾ 이 문제와 관련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백

2) 『삼국사기』의 원전에 대한 검토는 『舊三國史』와 古記 등 국내자료를 주 대상으로 검토되다가(李康來, 『三國史記 典據論』, 民族社, 1995; 이강래, 『三國史記 形成論』, 신서원, 2007), 최근에는 『삼국사기』에 채용된 중국 사서의 기록에 대해서도 자세한 비교 검토가 이루어졌다(전덕재, 『三國史記 本紀의 原典과 編纂』, 주류성, 2018). 다만 양자의 기록 차이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세밀히 검토되지 못하였다.

3) 이 내용을 토대로 삼국전쟁기 동아시아 역관계를 隋唐과 신라를 연결하는 동서세력과 고구려와 백제를 축으로 突厥과 倭로 연장하는 남북세력의 대립이라는 구도가 설정된 바 있다(盧重國, 「高句麗百濟新羅 사이의 力關係變化에 대한 一考察」 『東方學志』 28, 1981).

4) 李昊榮, 「麗濟連和說의 檢討」 『慶熙史學』 9·10합, 1982; 『新羅三國統合과 麗濟敗亡原因研究』 書景文化社, 2001.

제의 외교를 다루는 일련의 연구에서 ‘여제연화’가 부정되고 있다.⁵⁾

이러한 이해는 관련 기사의 맥락과 자료 사이의 대비를 통해 도출된 것으로서 방법론적 진전을 보여준다. 다만 기존의 비판은 이 설이 신라가 내세운 허구적 논리라는 것을 지적할 뿐, 정작 사서를 편찬한 주체의 시각이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⁶⁾ 이로 인해 ‘변형’을 매개로 당시의 사실적 상황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지 못하였다.

이처럼 ‘여제연화’ 문제에서 신라를 중심에 놓는 것은 관련 자료의 영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7세기 상황을 신라의 ‘통일’ 과정으로 이해하는 시각과 무관하지 않다. 신라가 당을 끌어들이어 ‘통일’을 달성했다는 ‘불완전성’을 의식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라의 주체적 노력과 역량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여제연화’도 결국 당을 끌어들이기 위한 신라의 외교적 수완으로 평가되는 것이다.⁷⁾

하지만 삼국과 관련된 중국 왕조의 인식이 단순히 신라의 외교적 주장에 따라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중국 왕조가 신라하고만 외교를 맺은 것도 아니고 고구려의 동향에도 계속 주목하며 여러 차례 원정도 단행하였다. 또한 백제의 적극적인 외교 활동이 있었던 상황에서 중국 왕조가 신라의 주장에 따라 삼국의 상호 관계를 바라보았다는 것은 단

5) 정동준, 「7세기 전반 백제의 대외정책」 『역사와현실』 46, 2002.

박윤선, 「7세기 전반 삼국의 역관계와 백제의 대당외교 : 백제의 입장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27, 2007.

6) 최근 고구려의 입장에 초점을 맞추거나(방용철, 「麗濟 連和說의 재검토」 『民族文化論叢』 62, 2016) 당의 인식에 주목하는 연구도 이루어졌지만(박찬우, 「640년대 전반 ‘麗濟連和’의 실상과 唐의 백제 인식」 『史學研究』 141, 2021), 신라의 주장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은 유지되고 있다.

7) 백제가 지속적으로 대수 군사외교를 전개해 왔음에도 圓光의 乞師表 사적을 매개로 7세기 대중국 외교의 중심을 신라에 두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신라의 청병은 『수서』에 나타나지 않거나 결사표 자체가 내용적으로 많은 의문을 낳는다. 이에 최근에는 원광의 결사표가 그의 儒術을 드러내기 위해 후대에 가공된 것이며, 당시 신라의 대수 청병 또한 실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윤경진, 「7세기 초 신라의 對隋 군사외교에 대한 재검토 : 圓光 乞師表의 사실성 검증을 중심으로」 『東國史學』 71, 2021①). 따라서 이 시기 대중국 외교에서 신라를 중심에 놓는 시각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선적인 이해이다.

간혹 신라의 주장을 수용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것은 중국의 정책 기조에서 활용되는 것이다. 또한 중국 왕조가 표방한 것을 신라가 수용하는 맥락도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기사에 깔려 있는 중국 왕조의 시각과 지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삼국사기』 등이 중국 사서의 기사를 채용하면서 해당 사적을 어떻게 이해하고 취사 내지 변형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隋代를 중심으로 백제의 군사외교와 그와 관련된 사서의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수서』는 당 태종 때 편찬되었다. 수의 존속 기간이 짧았고 멸망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사서가 편찬되었다. 뒤에 당 태종이 고구려 원정을 단행한 것에서 당 초기의 대외정책, 특히 대고구려 정책이 기본적으로 수대의 연장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수대의 대외관계를 당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서술할 개연성이 높다.⁸⁾

그리고 백제의 외교를 중심으로 삼는 것은 수의 행보가 백제의 외교 활동과 깊이 관련된 것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 사안을 바라보는 중국 사서의 시각도 백제를 매개로 고구려나 신라 문제를 해석할 여지가 크다. 이 부분에 초점을 둬으로써 중국 사서의 인식과 그에 따른 기사의 맥락을 이해하고, 그것을 원전으로 이용한 『삼국사기』의 편집과 변형의 구체적 양상도 추출할 수 있다.

이에 먼저 2장에서는 598년에 있었던 수의 고구려 원정과 관련된 외교적 상황을 살펴볼 것이다. 백제는 고구려 원정에 편승하여 軍導를 요청했으나 그 사이 고구려의 사죄가 이루어져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고

8) 『隋書』는 636년(당 태종 10)에 편찬되었으며, 645년 고구려 원정이 있었다. 앞서 631년 태종은 隋代에 전물한 병사를 물어주고 고구려가 건립한 京觀을 부수었는데, 정벌을 우려한 고구려가 장성을 쌓아 대비했다고 한다(『舊唐書』 권199, 列傳149 東夷 高麗, “五年 詔遣廣州都督府司馬長孫師往收殮隋時戰亡骸骨 毀高麗所立京觀 建武擢伐其國 乃築長城 東北自扶余城 西南至海 千有余里”). 이는 태종 초부터 이미 고구려와 긴장이 높아져 있었고 계기가 주어지면 원정이 단행될 여건이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수서』에는 고구려 및 삼국의 관계에 대해 唐의 시각이 투영될 여지가 크다.

구려 원정 관련 기사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백제의 군도 요청이 가지는 배경과 의미 등을 따져볼 것이다.

3장에서는 607년 백제가 수에 고구려 원정을 요청한 것과 고구려 원정이 단행된 611-612년 백제가 보인 행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당시 백제에 대해 『수서』는 고구려와의 ‘通和’나 ‘兩端’ 같은 의혹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이를 원전으로 한 『삼국사기』는 의혹 부분을 채록하지 않았다. 이에 『수서』에서 왜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것인지, 그리고 『삼국사기』의 편집은 어떤 의도가 담긴 것인지 알아볼 것이다.

II. 598년 隋의 고구려 원정과 백제의 대수 외교

1. 598년 수의 고구려 원정

백제의 대수 군사외교는 598년 수의 고구려 원정을 그 계기로 삼고 있다. 따라서 백제의 외교 상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수의 고구려 원정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여러 사서에서 관련 기사의 구성이 다르고, 같은 사서 안에서도 편목에 따라 내용 차이가 보인다. 598년 수와 원정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이러한 자료상의 차이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⁹⁾ 하지만 당시 역사상을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세밀한 검증이 요구된다.¹⁰⁾

9) 李成制, 「嬰陽王 9年 高句麗의 遼西 攻撃」 『震檀學報』 90, 2000 ; 『高句麗의 西方政策 研究 : 北朝와의 對立과 共存의 關係를 중심으로』, 국학자료원, 2005

尹秉模, 「高句麗의 對隋戰爭과 遼西攻略」 『軍史』 72, 2009 ; 『高句麗의 遼西進出 研究』, 景仁文化社, 2011.

이정빈, 「598년 고구려의 요서 공격과 수의 반격 시도」 『고구려-수 전쟁』, 주류성, 2017.

10) 본고는 백제의 군도 요청 시기와 의미를 가늠하기 위한 매개로서 598년 원정을 다루는 것이므로 전쟁의 내용과 성격에 대한 세부 논의는 차후의 과제로 넘긴다.

먼저 『隋書』 帝紀의 기록부터 보자.

표 1) 『수서』 제기의 598년 고구려 원정 기사¹¹⁾

항목	내용	기사 : 자료 가)
①	고구려 원정	(2월 乙巳) 以漢王諒爲行軍元帥 水陸三十萬伐高麗
②	관작 삭탈	(6월 丙寅) 下詔黜高麗王高元官爵
③	철군	(9월 己丑) 漢王諒師遇疾疫而旋 死者十八九

『수서』 제기의 기사는 내용이 간략하지만 각 사건의 시점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 전체 상황을 이해하는 기준이 된다. 곧 598년 원정은 2월의 출정 명령, 6월의 관작 삭탈, 9월의 철군으로 구성된다.

이번에는 『수서』 고려전의 내용을 살펴보자. 다른 사서와의 대조를 위해 세부 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수서』 고려전의 598년 고구려 원정 기사¹²⁾

항목	내용	기사 : 자료 나)
①	고구려의 요서 공격	明年 元率靺鞨之衆萬余騎寇遼西 營州總管韋冲擊走之 高祖聞而大怒
②	출정	命漢王諒爲元帥 總水陸討之
③	삭탈 관직	下詔黜其爵位
④	수군의 피해와 철군	時 饋運不繼 六軍乏食 師出臨渝關 復遇疾疫 王師不振
⑤	고구려의 사죄와 전쟁 종료	a. 及次遼水 元亦惶懼 遣使謝罪 上表稱遼東冀土臣元云云 b. 上於是罷兵 待之如初 元亦歲遣朝貢

①은 원정의 배경으로서 고구려의 요서 공격에 대한 것이다. ②는 수 문제가 漢王 諒으로 하여금 고구려를 공격하도록 한 조치로서 자료

11) 『隋書』 권2, 帝紀2 高祖下.

12) 『隋書』 권81, 列傳46 東夷 高麗.

가)-①에 상응한다. 다음에 ③은 고구려 영양왕의 관작을 삭탈한 것으로서 자료 가)-②에 해당한다. ④는 자료 가)-③에 해당하며 군대의 진주와 철군 경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적고 있다. ⑤는 고구려가 사죄하고 문제가 이를 받아들여 전쟁이 종료되는 상황을 적고 있다. 이 부분이 백제의 군도 요청을 이해하는 준거가 되는데, 자료에 따라 그 맥락이 다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

이번에는 『資治通鑑』의 기사를 검토해 보자. 『자치통감』은 편년체이므로 일단 시간 구분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기사는 『자치통감』을 따르면서 일부 내용을 축약한 것이므로 따로 논하지 않는다.

표 3) 『자치통감』의 598년 고구려 원정 기사¹³⁾

항목	내용	기사 : 자료 다)
①	고구려의 요서 공격	a. 春二月 甲辰 上幸仁壽宮 b. 高麗王元帥靺鞨之衆萬餘寇遼西 營州總管衝擊韋走之 上聞而大怒
②	출정	乙巳 以漢王諒王世積 並爲行軍元帥 將水陸三十萬伐高麗 以尙書左僕射高穎爲漢王長史 周羅□爲水軍總管
③	관작 삭탈	六月 丙寅 下詔黜高麗王元官爵
④	수군의 피해와 철군	a. 漢王諒軍出臨渝關 值水潦 饋運不繼 軍中乏食 復遇疾疫 b. 周羅□自東萊泛海趣平壤城 亦遭風 船多飄沒
⑤	고구려의 사죄와 전쟁 종료	a. 秋九月 己丑 師還 死者什八九 b. 高麗王元亦惶懼遣使謝罪 上表稱遼東糞土臣元 上於是罷兵 待之如初
⑥	백제의 군도 요청	百濟王昌遣使奉表 請爲軍導 帝下詔諭以高麗服罪 朕已赦之 不可致伐 厚其使而遣之 高麗頗知其事 以兵侵掠其境

13) 『資治通鑑』 권181, 煬皇帝上之下 大業 8년.

①에서 수의 고구려 원정 배경이 되는 b는 고려전의 자료 나)-①에 해당한다. 유의할 점은 이것이 앞 기사인 a에 제시된 시점의 일이 아니라 ②의 사건을 설명하기에 앞서 그 배경으로 삽입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시기와 내용에서 a와 상관이 없으며, ②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②는 출병에 대한 것으로서 제기에 언급된 漢王 諒 외에 王世積, 高穎, 周羅睪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이것은 해당 인물의 열전 기사에 ‘遼東之役’, 곧 고구려 원정에 참여한 기사가 있어 이를 기반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들의 열전에서 관련 기사를 추출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수서』 열전의 598년 고구려 원정 관련 기사

항목	열전	기사 : 자료 라)
①	漢王 諒 (권 45, 庶人 諒)	十八年 起遼東之役 以諒爲行軍元帥 率衆至遼水 遇疾疫 不利而還
②	王世積 (권 40)	及起遼東之役 世積與漢王并爲行軍元帥 至柳城 遇疾疫而還
③	高穎 (권 41)	以穎爲元帥長史 從漢王征遼東 遇霖潦疾疫 不利而還
④	周羅睪 (권 65)	十八年 起遼東之役 徵爲水軍總管 自東萊泛海 趣平壤城 遭風 船多飄沒 無功而還

『자치통감』은 이 기사들을 통해 원정에 참여한 인물과 그 직책을 정리하였다. 그런데 『자치통감』은 철군 경위와 관련하여 고려전과 다른 맥락으로 정리하고 있다. 먼저 『자치통감』을 기준으로 열전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고려전 기사와 대비하여 변형이 발생한 맥락과 이유를 짚어보기로 한다.

한왕 량이 이끄는 수군의 전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1) 出臨渝關 (2) 值水潦 (3) 饋運不繼 軍中乏食 (4) 復遇疾疫 (5) 師還 死者什八九

臨渝關은 장성의 동쪽 끝에 위치하며 현 북경 동북쪽에 있는 루룽[盧龍]현 지역에 해당한다. 이곳을 나서는 것은 출정의 시작을 의미한다. 다음에 ‘水潦’는 많은 비로 강의 수위가 올라간 것을 말하는데, 이 강은 곧 遼河이다. 수군은 강물이 불어나면서 요하를 건너지 못한 것이다. 이 상황에서 보급 차질로 군량 부족을 겪었고 추가로 역질이 돌면서 결국 철군하게 되었다.

이 내용은 열전에서 확인되는 상황과 일치한다. ①에는 요수(요하)에 이르러 역질을 만난 것으로 되어 있다. ②에서는 柳城에 이르러 역질을 만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성은 현 자오양[朝陽]시에 해당한다. 요하에 인접하고 있으므로 ①과 같은 내용이다. ③에는 ‘霖潦’를 만난 내용이 나온다. 곧 수군이 요하에 이르렀을 때 장마로 물이 불어 건널 수 없었던 사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종합하면 『자치통감』에 정리된 상황과 일치한다. 이것을 고려전 기사와 대비해 보면, 일단 수군이 임투관을 나선 내용은 동일하지만 그 전후 상황이 다르게 설명되어 있다.

우선 고려전에는 ‘수료’를 만난 것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 한왕 랑의 열전에 요수에 이르렀다는 내용이 있고 강의 물이 불어 건널지 못한 상황이 읽힌다. 구문으로만 보면 뒤에 이어지는 “及次遼水”가 이에 해당하는데, 기사의 위치가 다르고 수위 상승에 대한 표현이 없다. 당초 이 부분은 철군의 한 원인을 말한 것인데, 고려전의 “及次遼水”는 고구려의 사죄를 유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당시 전황과 관련하여 『자치통감』이 ‘철군’에, 고려전은 ‘사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

보급 차질은 요하에 발이 묶인 상황에서 발생하였고 여기에 역질이 추가되었다. 그런데 고려전은 보급 차질 설명이 임투관 출발보다 앞에 있다. 본격적인 출정 전에 이미 보급 문제가 있었다는 맥락이다. 그러나 자료 라)를 보면 당시 수군이 요하에 도달한 뒤에 보급 차질과 역질이 발생한 것이 명확하다. 이는 이어지는 내용과 연결해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④-a는 제기의 내용과 동일하다. 여기에 철군과 더불어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내려져 있다. 하지만 제기에 고구려의 사죄는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자치통감』을 따르면 먼저 ‘師還’이 있고, 이어 고구려의 ‘사죄’가 있는 다음, 비로소 ‘罷兵’ 조치가 내려진 것이 된다. 이것은 부득이한 철군 후에도 고구려 원정 자체는 종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수의 원정 의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고구려가 사죄사를 보내자 비로소 문제는 이를 명분으로 원정을 종료하였다. 따라서 사죄사는 ‘사환’에 연동된 사적이 아니라 ‘파병’으로 이어지는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고려전의 기사는 『자치통감』의 것과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르면 수군이 요하에 도달하자 고구려가 두려워 사죄한 것이므로 양자는 하나의 상황으로 묶인다. 고려전에서는 역병 발생 후에 요수 도달을 배치함으로써 두 사건의 선후관계를 뒤집었다. 곧 수군은 역질로 철군한 것이 아니라 계속 진군하여 요하에 이르렀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사기 저하만 말할 뿐 철군[師還]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제기에서 철군을 명시한 것과 대비할 때 이 구성은 의도적 편집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고려전에서 이와 같이 편집한 것은 당시 원정의 성과를 고구려의 사죄와 직접 연결하기 위한 것이다. 내용으로 보면 당시 원정은 고구려와 충돌하기도 전에 철군한 것이므로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그런데 고려전은 요하 도달로 사죄가 이루어졌고 이 사죄로 원정이 종료되므로 명백히 성과를 거둔 것이 된다. 『수서』는 당시 원정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전황을 변형한 것이다.

이상에서 598년 수의 고구려 원정은 『자치통감』에 정리된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 경우 제기되는 문제는 고구려가 언제 사죄사를 파견했는가 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는 기사 내용을 그대로 따라 사죄사가 곧바로 파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물리적으로 무리가 있다. 전술한 것처럼 당시 상황은 수군이 요하에 도달했다가 역질 등으로 철군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사죄사를 보내자 전쟁을 종료한 것이다. 이

경우 철군과 사죄 사이에는 시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수군이 요하에서 부득이 철군했지만 원정은 지속되므로 언제든지 공격이 재개될 수 있었기에 고구려는 사죄사를 보내 관계의 복구를 청하였고, 문제는 이를 명분으로 전쟁을 종료한 것이다. 그 사이에 양국은 서로의 상황을 탐색하는 시기가 개재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고구려가 사죄사를 보낸 시점은 언제일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600년이다. 이 해 정월 고구려가 사신을 보내 방물을 바쳤다.¹⁴⁾ 영양왕 즉위 후 고구려는 591년 정월과 5월 두 차례 사신을 보낸 후, 597년 5월에 사신을 보냈다. 그리고 598년 원정이 있었는데, 이에 연동된 사행은 나타나지 않는다. 고구려가 다시 사신을 보낸 것은 600년의 일이다. 여기서 이 사신이 원정 후 관계 개선을 위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자치통감』에는 후속 기사로 백제의 사신 파견이 연결되어 있다(c). 형식상 9월 기사에 들어 있지만, 그 내용이 고구려의 사죄사 파견과 문제의 수용 이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 시점을 다시 짚어보아야 한다. 이는 다음 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2. 백제의 軍導 요청 배경과 의미

백제는 4세기 후반 고구려와 접경하면서 공방을 벌인 이래 침예하게 대립하였다. 백제는 평양을 공파하고 고국원왕을 전사케 함으로써 溟水(대동강)까지 영토를 확보하였다.¹⁵⁾ 이는 그대로 백제의 고유 영토로 확립되었다. 그러나 광개토왕의 남정으로 백제는 한강이북을 상실하였다.

14) 『隋書』 권2·帝紀2 高祖下, 開皇 20년 정월 辛酉, “上在仁壽宮 突厥高麗契丹并遣使貢方物”

『三國史記』 권20, 高句麗本紀8 嬰陽王 11년 정월, “遣使入隋朝貢”

15) 당시 전쟁에 나오는 溟水는 예성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대동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윤경진, 2016 앞의 논문 및 윤경진, 「4세기 후반 백제의 대고구려 전쟁과 영토의식 : 雉壤城·溟水에 대한 새로운 비정을 바탕으로」 『韓國史研究』 193, 2021② 참조.

이후 백제는 舊地 수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개로왕 때 북위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 원정을 요청한 것은 그 산물이었다. 그러나 이는 장수왕의 남정을 불러왔고 백제는 한성이 함락되고 개로왕이 피살되는 피해를 입었다. 백제는 도읍을 웅진으로 옮긴 뒤에도 고구려와의 공방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대중국 외교는 백제의 중요한 전략이었다. 개로왕 때 백제는 북위가 원정을 거부하자 국교를 끊었지만, 곧이어 다시 북조 국가와 외교를 재개하였다. 570년 위덕왕은 北齊로부터 책봉을 받았다.¹⁶⁾ 또한 北周가 수립되자 역시 통교를 이어갔고,¹⁷⁾ 수가 수립된 뒤에도 마찬가지로였다.¹⁸⁾

전통적으로 백제의 주된 외교 대상은 남조 국가였고, 이 당시 남조의陳과도 통교하고 있었다.¹⁹⁾ 이러한 상황에서 백제가 다시 북조 국가와 통교한 데에는 고구려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고구려와 대치한 백제로서는 북조 국가를 외교적으로 활용하여 고구려를 압박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²⁰⁾

수가 진을 무너뜨리고 통일을 달성하면서 이러한 지향은 더욱 두드러졌다. 백제는 589년 표류인을 돌려보내면서 表를 보내 진 평정을 축하하였다.²¹⁾ 수가 고구려에 대해 압박 강도를 높이자 백제는 이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다.²²⁾

16) 『三國史記』 권27, 百濟本紀5 威德王 17년.

17) 『三國史記』 권27, 百濟本紀5 威德王 24년 11월.

18) 『三國史記』 권27, 百濟本紀5 威德王 28년.

19) 『三國史記』 권27, 百濟本紀5 威德王 14년 9월.

20) 위덕왕의 對北朝 외교는 신라의 한강유역 점령으로 그동안 고구려를 상대로 한 신라와의 공존관계가 깨지고 백제가 고립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설명하기도 한다(박윤선, 「위덕왕대 백제와 남북조의 관계」 『역사와현실』 61, 2006, 89-93쪽).

21) 『三國史記』 권27, 百濟本紀5 威德王 36년, “隋平陳 有一戰船漂至耽牟羅國 其船得還經于國界 王資送之甚厚 并遣使奉表 賀平陳”

22) 隋를 이용하여 고구려를 견제하려는 백제의 전략은 일찍이 지적된 이래(盧重國, 앞의 논문, 1981)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에는 위덕왕과 무왕의 고구려 견제가 고구려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보다는 대수관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외교전술이었다고 평가하는 견해도 있다(선봉조, 「백제 威德王-武王代 對高句麗 견제의 외교적

598년 2월 수는 마침내 한왕 랑 등으로 하여금 고구려를 공격하게 하였다. 그러나 원정군은 상황이 악화되어 9월에 요하에서 철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에 편승하여 백제가 수에 원정 지원을 자청하고 나섰다. 다음은 이에 대한 『수서』 백제전과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기사이다.

표 5) 『수서』 백제전과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598년 군사외교 기사²³⁾

항목	『수서』 백제전: 자료 마)	『삼국사기』 백제본기 : 자료 바)
①	a. 開皇十八年 昌使其長史王辯那來獻方物 b. 屬興遼東之役 遣使奉表 請爲軍導	a. 王使長史王辯那入隋朝獻 b. 王聞隋興遼東之役 遣使奉表 請爲軍道
②	帝下詔曰 往歲爲高麗不供職貢 無人臣禮 故命將討之 高元君臣 恐懼 畏服歸罪 朕已赦之 不可致伐 厚其使而遣之	王使長史王辯那入隋朝獻 王聞隋興遼東之役 遣使奉表 請爲軍道 帝下詔曰 往歲高句麗 不供職貢 無人臣禮 故命將討之 高元君臣 恐懼畏服歸罪 朕已赦之 不可致伐 厚我使者而還之
③	高麗頗知其事 以兵侵掠其境	高句麗頗知其事 以兵侵掠國境

이 기사는 『자치통감』에는 598년 9월 기사에서 문제의 용서 다음에 이어져 있다(자료 다)-(5). 王辯那 파견 사실이 없고 조서 내용이 간략히 처리된 차이가 있다. 기사 내용은 백제의 사신 파견과 군도 요청, 수 문제의 거부, 고구려의 대응 등으로 구성되는데, 기사의 맥락에서 세부적으로 몇 가지 짚어볼 사항이 있다.

첫째, 백제의 사신 파견 내용이다. 기사에 백제의 사신은 방물을 바치

함의 『耽羅文化』 57, 2018). 이것은 당시 고구려와 백제의 실질적인 충돌이 없었던 것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전 시기 백제의 행보에서 드러나듯이 복진을 통한 구지 회복은 지속적인 과제였으므로 고구려의 위협과 별개로 백제의 고구려 견제 정책은 지속되고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23) 『隋書』 권81, 列傳46 東夷 百濟.

『三國史記』 권27, 百濟本紀5 威德王 45년 9월.

러 간 왕변나와 군도를 요청한 사신이 보인다. 순서대로 읽는다면 왕변나 편에 수의 고구려 원정 계획을 듣고 다시 사신을 보내 군도를 청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²⁴⁾ 후술할 607년의 사신은 이러한 형태로 파악된다.

하지만 기사 형식이나 사건 상황을 보면 왕변나가 군도를 요청한 맥락으로 읽는 것이 타당하다. 사신에 대한 두 내용을 연결하는 ‘屬’은 ‘때 마침’ 내지 ‘-에 즈음하여’의 뜻으로 해석된다. 주된 서술 사항에 대해 동시적으로 발생한 상황을 배경이나 부연으로 설명하는 기능을 한다. 이 점에서 시간 표시에 사용하는 ‘當(-하는 때가 되어)’이나 문장 연결에 쓰이는 ‘時(그 때)’와 유사하다. 여기서 연결되는 두 내용은 선후관계가 없거나 배경으로 설명되는 뒤의 내용이 선행할 수 있다. 또한 왕변나 편에 정보를 얻어 다시 사신을 보낸 것이라면 ‘又’나 ‘再’ 같은 말을 붙여 구분했을 것이다.

조공 사신 편에 별도의 업무를 행하게 하는 사례도 종종 보인다. 후술 하듯이 607년 백제는 왕효린을 보내 入貢하고 ‘겸하여[兼]’ 고구려 토벌을 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왕변나 또한 방물을 바치는 통상적 사행에 겸하여 군도 요청을 한 것인데, 그 배경으로 수의 요동 공격 정보를 제시하면서 그에 연동된 행위로 “遣使奉表”가 다시 언급된 것이다. 따라서 위의 사행은 하나이며, ‘屬’ 이하는 부연 설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자치통감』에 왕변나 사행이 실리지 않은 것 또한 양자를 동일시한 결과가 아닐까 한다.

둘째, 백제가 요청한 ‘군도’의 내용 내지 의미이다. 군도는 지리를 모르는 군대가 정상적으로 목표점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이끄는 것을 말한다. 백제가 수의 고구려 공격로를 안내하겠다는 것인데, 당시 지정학적 관계에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이다.

통상 군도는 원정 계획 단계나 실행 초기에 설정되는 것이다. 원정이

24) 이러한 시각에서 왕변나는 598년 초에 입조했고 여기서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9월에 다시 사신을 보낸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선봉조, 앞의 논문, 2018, 134-136쪽).

진행되는 상황에서 군도 요청은 이미 입안된 전략과 일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런데 당시 원정 경로는 백제의 군도 요청과 부합하지 않는다.

수의 목표점은 평양성이다. 주력 부대는 요하와 압록강을 건너 평양으로 진주할 것인데, 이 경로에서 백제가 군도 역할을 할 수는 없다. 또한 수의 船軍은 바다를 건너 바로 평양성을 공격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이 부대가 정상적으로 진주했다면 대동강 하구를 통해 바로 평양을 공격하게 되므로 역시 백제가 군도를 담당할 여지가 없다.

한편 백제가 군도를 청했을 때는 이미 고구려의 사죄가 이루어진 상황이었다. 수군의 철군 후에 사죄가 있었는데, 백제 사신이 고구려 사죄사보다 늦게 온 것이다.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백제는 한왕 량의 원정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²⁵⁾

백제의 군도 역할은 수군이 백제 경내를 경유하거나 적어도 백제가 인지하고 있는 지역을 이용해야 한다. 이것이 성립할 수 있는 지역은 한강이북 외에는 생각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수군이 배를 이용해 한강 방면에 도달한 다음, 여기서 육로로 평양으로 진주하는 방법이 상정된다. 백제는 4세기 후반부터 이 지역에서 고구려와 전쟁을 벌인 바 있으므로 수군을 효과적으로 평양까지 인도할 수 있었다.²⁶⁾ 백제의 군도는 바로 이 방법을 제안한 것으로 짐작된다.

결국 백제의 군도는 598년 원정이 아니라 그 후에 재개될 공격에서 새로운 전략으로 제시된 것이다. 따라서 요청 시점 또한 598년보다 뒤로 보아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

한편 백제의 요청은 구지를 수복하는 방안으로서 의미가 있었다. 수의 목적은 고구려를 제압하고 요동을 장악하는 데 있었다. 그런데 남방으로

25) 당시 백제가 뒤늦게 군도를 요청한 것을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전쟁에 개입하기보다는 수를 부추겨 고구려 국경에 긴장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보기도 한다.(박윤선, 앞의 논문, 2006, 100쪽)

26) 675년 宿衛學生 風訓이 唐軍의 향도가 되어 신라를 공격했다는 기사를 통해 백제의 군도 역할을 유추할 수 있다(『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7 文武王 15년 9월, “薛仁貴以宿衛學生風訓之父金眞珠伏誅於本國 引風訓爲鄉導 來攻泉城”).

부터의 진주가 이루어져 성과를 거둔다면, 평양이남 지역은 군도로서 기여한 백제가 확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라와의 관계도 상정된다. 이 시기 신라가 북한산성을 점유하고 있었던 만큼 수군이 백제의 인도를 받아 북상하면 신라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신라가 한강 방면으로 진출하면서 백제의 東北鄙를 차지하고 新州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백제로서는 한강이북과 더불어 한성 지역의 수복이라는 과제도 공존하였다. 수의 고구려 공격은 한편으로 백제가 신라를 공략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였다.²⁷⁾ 일차적으로 고구려의 개입이 차단되거나 수군의 이동에 수반하여 백제군이 움직이므로 신라가 이를 견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 문제의 거부로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후술하듯이 양제의 고구려 침공 때 백제가 보여준 모습에서 이러한 의도가 읽힌다.

셋째, 백제의 사신 파견 시점이다. 형식적으로는 598년 9월 기사에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자치통감』의 구성을 참고한 결과로 보인다.²⁸⁾ 그러나 정확히 말해 598년 9월은 수군이 요하에서 철수한 시점이다. 그리고 백제의 요청 기사는 여기에 첨부된 것이다. 따라서 기사 형태만으로 백제의 요청을 598년 9월의 일로 판단할 수 없다.

문제가 고구려의 사죄를 이유로 백제의 청을 거부했으므로 백제 사신의 도래는 그보다 뒤의 일이다. 전술했듯이 고구려의 사죄가 600년 즈음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사죄는 수용되었지만 백제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므로 양자의 시차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위덕왕은 598년 12월에 사망하였고, 요청 기사에는 백제왕의 이름이 ‘昌’으로 나와 이러한 해석과 상충한다. 여기서 무왕의 즉위 과정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위덕왕 사망 후 동생인 혜

27) 이에 백제의 대수외교는 고구려의 관심을 한강유역에서 멀어지게 하여 신라와의 전쟁에 집중할 수 있게 하였다고 평가하기도 한다.(정동준, 앞의 논문, 2002, 40-41쪽)

28) 전덕재, 「『三國史記』百濟本紀의 原典에 대한 검토 : 중국 사서와 국내 자료 인용 기록을 중심으로」 『史學志』 53, 2016, 61쪽.

왕이 즉위했으나 이듬해 사망하고 다시 그 아들인 법왕이 즉위했다. 그러나 법왕 또한 이듬해 사망하고 그 아들인 무왕이 즉위하였다. 무왕은 즉위 후 연이은 왕위교체에 따른 정국의 불안을 수습하고 대수 외교에도 적극 나서게 되는 사정이 상정된다.

고구려 사신은 600년 정월에 파견되었고, 무왕은 5월에 즉위하였다. 왕위 계승을 알리기 위한 사신이 파견되었을 것인데, 그 시점은 고구려 사신보다 여러 달 늦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백제 사신은 고구려의 사죄를 모른 채 1차 원정에 실패한 수가 여전히 고구려 공격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겸하여 군도를 요청하였던 것이다.

이 때 무왕의 사신이 위덕왕의 사신으로 정리된 것은 이 기사가 598년 사적에 포괄하여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기사의 생성 과정에 대해 짚어보자. 이 기사는 연대기 부분에 나오지 않고 고구려 원정 사적에 부가되어 있다. 이로 보아 백제의 요청을 거부한 문제의 조서를 토대로 구성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 조서에는 고구려 원정의 배경 내지 당위, 백제의 군도 요청 사실, 문제의 거부 사유가 담겼을 것인데, 인용문에는 거부를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되어 있다. 대신 백제의 요청 사실을 추출하여 도입부로 정리하였다. 이 때 문제는 598년 원정의 정당성과 고구려의 사죄에 따른 용서의 불가피성을 말했을 것이므로 군도 요청의 배경으로서 遼東之役은 598년 원정부터 시작한다. 다시 말해 요동지역 전체를 배경으로 깔고 군도 요청을 서술함으로써 군도 요청이 598년 원정에 직접 연결된 것이다. “마침 요동의 역이 있어[屬遼東之役]”라는 표현은 이러한 상황을 담고 있다.²⁹⁾

이처럼 백제의 요청이 598년 원정에 직접 연결 인식되면서 백제왕의 이름도 그에 맞추어 들어간 것으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 조서에서는 사신을 보낸 백제왕의 이름이나 파견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이를

29) 『삼국사기』는 “屬”을 “王聞之”로 바꾸었는데, 이는 백제의 능동적 행보를 드러내는 의미가 있다. 607년 및 612년 기사에 대한 처리에서도 같은 상황이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룰 것이다.

598년 원정 사적에 연계하여 파악함으로써 백제왕도 창(위덕왕)으로 정리한 것이다.³⁰⁾

넷째, 고구려의 대응에 대한 이해이다. 『수서』 등의 기록을 보면 백제의 요청을 인지한 고구려가 보복으로 백제를 공격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이후 두 나라의 충돌 기사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607년(무왕 8) 5월 고구려가 백제의 松山城과 石頭城을 공격한 기사가 보일 따름이다.³¹⁾

이 전투는 백제의 요청과 다소 시차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백제의 행보에 대한 고구려의 대응이라는 의미는 분명하다. 특히 포로를 잡아 돌아가는 것을 보면, 공격 목적이 영토 확보보다는 보복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7세기에 접어들며 백제 방면에 대한 고구려의 침공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을 여지는 충분하다.

다만 위 기사에서 굳이 고구려의 보복을 언급한 것은 단순히 후속 상황을 설명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뒤이어 어떤 내용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읽힌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607년 원정 요청의 명분이 고구려의 침공에 대응하여 수의 구원을 청하는 맥락인 것과 관련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598년 기사로 나오는 백제의 군도 요청은 실제로는 무왕 즉위 직후인 600년의 일로 파악된다. 백제 사신 왕변나는 방물 진상과 더불어 수의 고구려 원정에 대한 군도 참여를 청하였다. 이는 598년 원정이 실패한 사정을 배경으로 백제 방면에 상륙한 뒤

30) 562년 陳은 余明(聖王)을 撫東大將軍으로 삼았는데(『陳書』 권2, 本紀3 世祖 天嘉3년 윤2월 己酉), 성왕은 554년에 사망하였다. 이는 중국 왕조가 백제의 국왕 교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가지지 못한 결과이다(梁起錫, 「百濟 威德王代の 對外關係」 『先史와 古代』 19, 2003, 236-237쪽). 또한 『수서』에는 혜왕의 존재가 나타나지 않고 법왕이 위덕왕의 아들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책부원귀』에는 百濟國王 昌(위덕왕)의 사후 아들 餘璋(무왕)이 즉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冊府元龜』 권998, 外臣部 奸詐).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백제의 군도 요청이 598년 사적에 연동되면서 백제왕을 위덕왕으로 인지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본다.

31) 『三國史記』 권27, 百濟本紀5 武王 8년 5월.

북진하여 평양성을 공격하는 전략을 제안한 것이다. 이를 통해 백제는 한강이북의 구지를 회복함과 아울러 신라가 차지한 한성 지역의 수복도 전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미 고구려의 사죄를 수용한 문제가 요청을 거부하면서 실패하였다. 그런데 양제가 즉위한 뒤 고구려 원정이 재개되었고 백제도 이에 부응하여 다시 군사외교에 나서게 되었다.

Ⅲ. 607-612년 백제의 군사외교와 史書의 인식

1. 607년의 군사외교와 ‘與高麗通和’

백제는 607년에 다시 수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 원정을 요청하였다. 이 기사는 『수서』 백제전과 『삼국사기』 백제본기에서 다소 차이가 보여 하나하나 대조 검토하기로 한다.

표 6) 『수서』 백제전과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607년 군사외교 기사³²⁾

항목	『수서』 백제전: 자료 사)	『삼국사기』 백제본기 : 자료 아)
①	大業三年 璋遣使者燕文進朝貢	遣扞率燕文進入隋朝貢
②	其年 又遣使者王孝隣入獻 請討高麗 煬帝許之 令覘高麗動靜	又遣佐平王孝隣入貢 兼請討高句麗 煬帝許之 令覘高句麗動靜
③	然璋內與高麗通和 挾詐以窺中國	

위의 기사에 따르면 백제는 두 차례에 걸쳐 사신을 보냈다. 사신의 이름이 다르므로 별개의 사행으로 보는 데 무리는 없다. 이 중 군사외교 내용은 후자에 해당한다.

607년 사행에서 먼저 지적할 부분은 그 시점이다. ①에서 『수서』는

32) 『隋書』 권81, 列傳46 東夷 百濟.

『三國史記』 권27, 百濟本紀5 武王 8년 3월.

大業 3년이라고만 밝히고 있으나 『삼국사기』에서는 동년 3월 기사로 정리되어 있다. ‘3월’은 『資治通鑑』이나 『冊府元龜』 등에서도 확인되지 않으며, 『삼국사기』에서 다른 3월 기사에 부여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것은 3월 시점이 파악된 별도의 자료가 있었음이 분명하며, 그것은 국내 자료일 수밖에 없다.³³⁾

다음에 두 백제 사신의 시간적 관계가 지적된다. 『수서』를 보면 燕文進의 사행에 대한 서술 뒤에 王孝隣의 사행에 대해 “其年”이라고 적고 있다. 이것은 두 기사가 각기 다른 자료에서 채록된 것임을 시사한다. 같은 자료에서 온 것이라면 굳이 “其年”이라고 적시할 필요가 없다. 기재 순서로 볼 때 3월 사행은 연문진으로 판단되며, 왕효린은 그와 별도의 자료를 통해 동년의 사행으로 파악되어 뒤에 첨가된 것이다.³⁴⁾

이번에는 정토 요청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 짚어보자. 『수서』 고려전에는 양제의 고구려 원정과 관련하여 선행 기사로 다음이 보인다.

자) 양제가 제위를 계승하니 천하가 융성하였다. 高昌王과 突厥啓人可汗이 아울러 직접 詣闕하여 貢獻하였다. 이에 高元(영양왕)에게 入朝를 요구하니 고원이 두려워하여 藩禮가 자못 누락되었다.³⁵⁾

위의 기사는 양제 즉위 후 주변 국가에 대한 수의 압박이 고조되는 상황을 보여주는데, 그 시점이 바로 대업 3년으로 파악된다. 이 해 4월 양제는 율령을 반포하고 사면을 시행하였고, 州를 郡으로 고치고 도량형을 古式대로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다.³⁶⁾ 그리고 5월에 돌궐의 啓民可汗이 내조하였다.³⁷⁾ 이는 인용문에서 突厥啓人可汗이 직접 예궐

33) 전덕재, 앞의 논문, 2016, 57쪽.

34) 3월의 사신이 燕文進이 아니라 王孝隣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선봉조, 앞의 논문, 2018, 143쪽), 연문진 기사는 3월을 명시하였고 왕효린의 사행 시점은 “其年”으로 구분하여 적고 있으므로 왕효린을 3월 사행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35) 『隋書』 권81, 列傳46 東夷 高麗, “煬帝嗣位 天下全盛 高昌王突厥啓人可汗并親詣闕 貢獻 於是 征元入朝 元懼藩禮頗闕”

36) 『隋書』 권3, 帝紀3 煬帝上 大業 3년 4월 甲申壬辰.

37) 『隋書』 권3, 帝紀3 煬帝上 大業 3년 5월 丁酉.

했다는 내용에 조응한다.

또한 고구려에 대한 양제의 입조 요구와 관련하여 제기에 다음 기사가 보인다.

차) 상이 고려 사신에게 말하기를, “돌아가 너희 왕에게 마땅히 일찍 와서 조현 하라고 말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계민과 함께 너희 땅을 순행할 것이다”라고 하였다.³⁸⁾

607년 양제는 돌궐의 복속을 이끌어낸 후 고구려에도 親朝를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무력으로 침공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고구려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양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었다.³⁹⁾

백제의 연문진은 3월에 파견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과는 직접 관련짓기 어렵다. 이와 대비하여 왕효린은 고구려에 대한 양제의 조치를 인지하고 이에 편승하여 다시 한번 고구려 원정을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이것은 수의 고구려 원정에 또 하나의 명분을 더해 줄 수 있었다.

침공의 일차적인 명분은 수에 제대로 臣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598년 문제는 “職貢을 받들지 않고 人臣의 예가 없는 것”을 원정의 명분으로 제시하였다. 양제가 친조를 요구한 것은 직공을 받들라는 의미였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번국에 대한 침략 행위는 천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천자가 정토하는 핵심 명분이 되었다.

자료상 직접 드러나지 않지만 백제는 고구려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침탈하여 수의 번병으로서 위상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청병의 근거로 적시했을 것이다. 이것은 개로왕 때 북위에 보낸 국서에서 고구려의 침범 행위를 문제삼으며 “속히 한 장수를 보내 신의 나라를 구해주십시오 [速遣一將 來救臣國]”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북위의 답서에서도 “고구려가 강역을 침범한 것을 알겠다[知高句麗阻疆侵軼]”라는 내용이

38) 『隋書』 권3, 帝紀3 煬帝上 大業 3년 8월 乙酉, “上謂高麗使者曰 歸語爾王 當早來朝 見 不然者 吾與啓民巡彼土矣”

39) 당시 고구려의 행보에 대해서는 여호규, 앞의 논문, 2002 참조.

보인다. 함께 사대하는 이웃 나라를 침략하는 행위는 천자를 거역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앞서 문제 때에는 수가 고구려 원정에 일차 실패한 후 새로운 전략을 제안하는 취지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개로왕 때와 유사하게 수의 ‘구원’이라는 명분을 걸었다. 앞서 고구려가 백제의 요청을 알고 보복 공격했다 기사(“高麗頗知其事 以兵侵掠其境”)는 바로 뒤이은 백제의 청병 및 양제의 원정에 명분적 토대를 제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요청은 고구려에 대한 ‘응징’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고, 이는 그대로 원정의 명분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양제는 요청을 수락하면서 백제로 하여금 고구려의 동정을 살피도록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군도 요청처럼 수군이 백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백제가 고구려의 동정을 살핀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이 구문은 백제의 요청을 수락하는 명분을 표현하는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짐작된다.

백제가 안으로 고구려와 通和하면서 중국을 엿보았다는 것은 고구려의 동정을 살피라고 한 양제의 지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다시 말해 해당 구문은 고구려와의 내통이 발현되는 구체적 행위로서 ‘중국 엿보기’를 설정하기 위해 반대 준거로 제시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백제의 행보는 ‘挾詐’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구성이다.

이 부분이 특히 문제되는 것은 『삼국사기』에서 해당 의혹 부분을 채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누가 왜 이 의혹을 제기한 것인지, 또 『삼국사기』가 이 부분을 신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것이다.

일단 이 구문은 당시 상황이 아니라 무왕의 행보에 대한 『수서』 찬자의 시각을 반영한다. 양제는 백제의 요청을 수락하였기 때문에 당시에 바로 ‘협사’라는 평가가 나올 여지가 없다. 이 구문은 607년 상황에 붙어있지만 612년 원정이나 그 이후에 수가 직접 관련 의혹을 제기한 흔적이 없다. 후술할 612년 기사의 “實持兩端”도 수가 아니라 『수서』 찬자의 평가이다. 사실 이 구문은 사서에서 기사 말미에 흔히 부연하는

‘사후적’ 평가의 색채를 띠고 있다. 수 자신이 제기한 문제라면 서술 형태도 그러한 맥락을 반영할 것인데, 해당 구문은 그렇게 보기 어렵다.

이 의혹이 부연된 것은 고구려와 백제가 연대하여 신라를 공격했다는 인식, 곧 ‘여제연화’설과 관련된다. 백제의 고구려 정벌 요청은 ‘여제연화’와 모순되기 때문에 백제의 의도를 의심한 것이다. 이것은 ‘여제연화’설을 제기한 주체 문제와도 연결된다.

최근 ‘여제연화’에 대한 비판적 연구에서는 신라가 외교적 의도에서 제기한 허구적 논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607년 상황에서 고구려와 백제의 통화는 신라와 직접 상관이 없다. 곧 신라가 제기해서 채용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서』가 편찬된 636년은 신라가 ‘여제연화’를 제기한 것으로 나오는 642년보다 앞선다. 결국 ‘여제연화’는 실질적으로 당이 제기한 것이며, 이것이 수대로 소급되며 『수서』에 투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⁴⁰⁾

한편 『자치통감』에는 이 사적이 612년 수의 고구려 침공에 대한 기사에 첨부되어 있으며, 『삼국사기』 고구려본기는 이를 채용하였다.

40) 『舊唐書』朱子奢傳에는 貞觀初에 고구려와 백제가 연대하여 신라를 침구하자 신라가 사신을 보내 급한 사정을 고했고 이에 주자사가 파견된 것으로 나온다(『舊唐書』권189, 列傳 139 儒學上 朱子奢, “貞觀初 高麗百濟 同伐新羅 連兵數年不解 新羅遣使告急 乃假子奢員外散騎侍郎充使”). 그러나 주자사는 고조 말엽에 고구려가 백제와 신라의 조공로를 차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며, 주자사전 기사는 후대의 ‘여제연화’ 문제가 혼효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서는 後稿에서 자세히 분석할 것이다.

표 7) 『자치통감』과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611-612년 군사외교 기사⁴¹⁾

항목	『자치통감』: 자료 카)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자료 타)
①	a初 百濟王璋遣使 請討高麗 帝使之覘高麗動靜 璋內與高麗 潛通	初 百濟王璋遣使 請討高句麗 帝 使之覘我動靜 璋內與我潛通
②	隋軍將出 璋使其臣國智牟 來 請師期 帝大悅 厚加賞賜 遣尙 書起部郎席律詣百濟 告以期會	隋軍將出 璋使其臣國知牟 入隋 請師期 帝大悅 厚加賞賜 遣尙書 起部郎席律詣百濟 告以期會
③	及隋軍度遼 百濟亦嚴兵境上 聲言助隋 實持兩端	及隋軍渡遼 百濟亦嚴兵境上 聲 言助隋 實持兩端

위의 두 기사는 거의 동일하다. 이를 『수서』 백제전과 대비하면 ①은 607년, ②는 611년, ③은 612년 기사에 해당한다. 『자치통감』은 백제 무왕의 청병과 양제의 원정을 하나의 사적으로 묶어 정리한 것이다. 이것은 물론 612년 원정이 607년 이래 백제의 지속적인 요청과 연결되어 있다는 시각을 반영한다.

결과적으로 당시 사적에 대해 『삼국사기』 백제본기는 『수서』 백제전을 토대로 정리한 반면, 고구려본기는 『자치통감』의 기사를 채용한 차이가 드러난다. 이로 인해 ①과 ②의 내용은 백제본기의 607년 및 611년 기사와 겹친다. 그런데 “璋(무왕)이 안으로 고구려와 통화하며 거짓을 끼고 중국을 엿보았다[然璋內與高麗通和 挾詐以窺中國]”라는 구문만 백제본기에서 삭제된 것이다.⁴²⁾ 다른 기사의 중복 출현을 감안할 때, 이 구문만 고구려본기 기사를 염두에 두고 제외한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백제본기는 의도적으로 이 구문을 삭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⁴³⁾

41) 『資治通鑑』 권178, 高祖文皇帝上之下 開皇 18년.

『三國史記』 권20, 高句麗本紀8 嬰陽王 23년 7월.

42) 이 구문에 대해 김수태는 백제본기에만 없고 같은 연도에 고구려의 침공을 받았다는 기사가 있어 모순이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金壽泰, 「삼국의 외교적 협력과 경쟁 : 7세기 신라와 백제의 외교전을 중심으로」 『新羅文化』 24, 2004, 28쪽). 다만 논자는 수대 양국의 동맹설을 모두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의도는 기사의 시점과 관련된다. 『자치통감』 내지 고구려본기 기사는 무왕의 행보를 612년 원정에 포괄시켰기 때문에 백제본기 기사에서 유도되는 607년 사적에 대한 인식에 구애되지 않는다.⁴⁴⁾ 다시 말해 백제본기의 편집은 607년이라는 시점을 명확히 의식하여 해당 구문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신라의 청병 사적과 관련된다. 신라본기에는 608년 수에 고구려 정벌을 요청하는 圓光의 乞師表 찬술 기사가 실려 있다. 그리고 611년 기사에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과) 왕이 수에 사신을 보내 표를 받들어 군사를 청하니 수 양제가 허락하였다.
군대를 움직인 일은 高句麗紀에 있다.⁴⁵⁾

위의 기사는 신라의 요청으로 수가 고구려를 원정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전황은 고구려본기로 연결하였다. 이는 당초 해당 원전에 청병 사실만 나오고 전황에 대한 내용은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표를 받들어 군사를 청하니 수 양제가 허락하였다”라고 한 것은 『수서』 백제전 및 『삼국사기』 백제본기 607년 기사에서 “고구려 토벌을 청하니 양제가 허락하였다[請討高麗 煬帝許之]”라고 한 것과 조응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인식은 동 시기 백제의 청병 사적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 양제의 원정을 가져온 청병은 백제와 신라 모두에서 구현

43) 같은 해에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하는 상황에서 『삼국사기』가 『수서』의 기록대로 백제가 고구려와 내통하고 있다고 기록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백제의 양단 책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박윤선, 「무왕대 전반기 삼국의 각축과 백제의 외교」 『韓國古代史研究』 53, 2009, 255쪽)

44) 『삼국사기』의 세 본기 사이에 내용이나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보인다. 이는 각 본기가 각기 다른 자료를 채용하거나 다른 맥락에서 편집된 부분이 있음을 보여준다. 隋와 관련된 사적에서 백제본기가 『수서』 백제전을, 고구려본기가 『자치통감』을 주로 채록한 것에서도 그러한 불일치의 일면이 나타난다. 따라서 백제본기 편집에서 의식한 문제를 고구려본기는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상정된다.

45)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4 眞平王 33年, “王遣使隋 奉表請師 隋煬帝許之 行兵事在高句麗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백제의 청병이 중국 사서에서 명확히 확인되는 반면, 신라의 청병은 확인되지 않아 국내의 전승 자료를 채용하여 구성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결사표 사적 자체가 원광의 儒術을 부각시키기 위해 가공된 사적으로 파악되지만, 『삼국사기』는 이를 적극 채용하여 대당 청병을 통한 ‘양국평정’의 前史로서 의미를 부여하였다.⁴⁶⁾

이 때 사적의 사실성을 확증하기 위해 『삼국사기』는 신라의 청병 사적을 백제의 사적에 맞추어 편집하였다. 곧 607년 청병에 맞추어 결사표를 배치하고,⁴⁷⁾ 611년 軍期 요청에 맞추어 신라의 요청을 실었다. 백제의 청병은 신라의 청병에 사실성을 제공하는 준거인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무왕의 청병에 대해 ‘협사’의 혐의를 씌울 경우, 그에 맞추어 정리된 신라의 청병도 사실성을 잃게 된다. 청병과 원정이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된 상황에서 신라의 청병이 원정을 유도한 것이라고 평가한다면, 실제 진행된 백제의 청병을 ‘협사’로 처리하기 곤란하다. 결국 『삼국사기』는 『수서』가 제기한 의혹을 삭제함으로써 당시 백제의 청병이 실질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인정하였고, 그 연장에서 신라의 청병에 대해서도 타당성과 사실성을 확보한 것이다.

이처럼 607년 백제의 청병 사적과 관련하여 『수서』는 백제가 고구려와 내통하고 있다는 의혹을 추가했는데, 이는 『수서』가 편찬된 당 태종대의 인식이 투영된 것이다. 반면 『삼국사기』 백제본기에서는 『수서』 백제전 기사를 채록하면서 의혹 부분은 삭제하였다. 이는 신라본기에서 중국 사서에 보이지 않는 신라의 청병 사적을 채용하면서 그 사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의도적 편집은 실제 원정이 진행된 611-612년 사적에서도 확인된다.

46) 윤경진, 앞의 논문, 2021①.

47) 결사표 찬술은 608년 기사로 되어 있지만, 同年의 첫 기사이면서도 月 표시가 없다. 반면 후속 기사는 월 표시가 있다. 그리고 신라본기에는 607년 항목이 없다. 여기서 결사표가 본래 607년 기사로 편집될 것인데, 前年 기사가 없어 608년 첫 기사로 잘못 편집된 것으로 판단된다(윤경진, 위의 논문).

2. 611-612년의 군사외교와 ‘實持兩端’

백제의 대수 군사외교는 수의 고구려 원정이 가시화된 611년에 다시 한 번 시도되었다. 역시 『수서』와 『삼국사기』 기사를 대조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표 8) 『수서』 백제전과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611-612년 군사외교 기사⁴⁸⁾

항목	『수서』 백제전: 자료 하)	『삼국사기』 백제본기 : 자료 거)
①	七年 帝親征高麗 璋使其臣國智牟來請軍期 帝大悅 厚加賞錫 遣尙書起部郎席律詣百濟 與相知	(무왕 12) a. (2월) 遣使入隋朝貢 b. 隋煬帝將征高句麗 王使國智牟入請軍期 帝悅 厚加賞錫 遣尙書起部郎席律來 與王相謀
②	明年 六軍渡遼 璋亦嚴兵於境 聲言助軍 實持兩端	(무왕 13) 隋六軍度遼 王嚴兵於境 聲言助隋 實持兩端
③	尋與新羅有隙 每相戰爭	

수 양제는 611년 2월 涿郡에 행차하여 “고려의 高元이 藩禮를 잃었으니 遼左에 죄를 묻고자 한다”⁴⁹⁾라고 하며 고구려 원정을 천명하였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는 양제가 조서를 내려 고구려를 토벌하도록 했다는 기사가 있다.⁵⁰⁾

①은 이러한 양제의 행보에 조응하는 백제의 외교를 정리한 것이다. 『삼국사기』에는 양제의 친정 기사 앞에 백제의 조공 기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는 『수서』 제기 기사를 채록한 것이다.⁵¹⁾ 이 사신은 양제가 탁군에 행차하여 조서를 반포하기 전에 도래했기 때문에 이어지는 내용과는 별개임이 확인된다.

48) 『隋書』 권81, 列傳46 東夷 百濟.

『三國史記』 권27, 百濟本紀5 武王 12년 2월.

49) 『隋書』 권3, 帝紀3 煬帝上 大業 7년 2월 壬申, “高麗高元 虧失藩禮 將欲問罪遼左”

50) 『三國史記』 권20, 高句麗本紀8 嬰陽王 2년 2월, “煬帝下詔 討高句麗”

51) 『隋書』 권3, 帝紀3 煬帝上 大業 7년 2월 庚申.

이에 백제는 다시 國智牟를 보내 ‘軍期’를 청하였다. 군기는 두 군대가 기일을 정해 만나 합세하거나 특정한 작전을 기일에 맞추어 수행하는 것이다. 백제가 수에 군기를 청한 것은 수의 원정 시점에 맞추어 자신도 군사 행동을 하겠다는 의미이다.

612년 군대 편성에 대한 언급을 보면 船軍에 대한 내용이 있다. 이들은 滄海道로 편성되었으며, “폐강을 횡단하여 바로 평양으로 들어간다”⁵²⁾라고 하였다. 이것은 598년 원정과 마찬가지로 바다를 가로질러 대동강에 진입한다는 전략이다. 백제군과 합세하는 구도는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백제가 말한 ‘군기’는 수의 고구려 공격에 맞추어 자신도 고구려를 공격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수에 대한 고구려의 대응 역량을 분산시키는 만큼 양제로서도 적극 수용할 만한 방안이었다. 양제가 席律을 백제에 보낸 것은 그 반영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사서마다 표현이 약간 달라 눈길을 끈다. 『수서』는 “相知”, 『삼국사기』는 “相謀”로 되어 있다. 그리고 『자치통감』은 “告以期會”라고 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당초 수의 공격 일정이 잡혀 있었을 것이고 백제는 이를 알려달라는 것이므로 수의 사신 파견은 이를 고지하고 그에 따른 백제의 계획을 듣는 것이 목적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수서』의 “相知”는 이러한 정보 교환의 의미이며, 그 본령은 『자치통감』의 표현대로 ‘고지’하는 데 있다.

이에 비해 “相謀”는 함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므로 일방적 통지나 정보 교환보다 ‘협의’의 의미를 가진다. 이에 비추어 『삼국사기』가 굳이 이 부분을 “相謀”라고 한 것은 『수서』에 비해 백제의 능동성을 부각시키는 의미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

다음에 ②는 612년 수의 원정이 실행되었을 때 백제의 동향에 대한 것이다. 당시 백제는 고구려와의 경계에 군대를 배치하였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고구려 방면에 대한 공격을 도모한 것이다⁵³⁾. 그런데 그 뒤

52) 『隋書』 권4, 帝紀4 煬帝下 大業 8년 정월 壬午, “橫斷涇江 逕造平壤”

53) 당시 고구려와 백제가 접경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598년 군도 요청 이후 고구려가 보복으로 백제를 공격했다는 내용, 607년 고구려가 백제의 松山城

에는 “수를 돕는다고 성언했으나 실제로는 양단을 잡은 것이다[聲言助隋 實持兩端]”라는 구문이 더해져 있다. 백제의 행위가 이중적이라는 평가이다. 수군을 돕는다는 것은 백제가 원정을 청한 것에 조응한다. 그런데 이는 ‘성언’일 뿐이며 실제 목적은 따로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실지양단”으로 표현하였다.

“실지양단”의 실체에 대해서는 그간 학계에 논란이 있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각에서는 그 사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⁵⁴⁾ 일반적으로 ‘양단’의 내용은 수를 지원하는 것과 고구려와 통화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구문의 의미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단’은 서로 다른 두 갈래의 상황을 말한다. “양단을 잡는다[持兩端]”라는 표현은 서로 대립적인 두 입장을 모두 취하거나 겹으로 드러난 행위 외에 실제 목적이 따로 있는 것을 가리킨다. 위에서 “實”을 붙인 것은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실제 목적이 있음을 나타낸다.

607년 기사에서 안으로 고구려와 통화한 백제의 의도를 “중국을 엿본다”라고 했는데, 이는 양제가 요청을 허락하며 백제로 하여금 “고구려의 동정을 살피라”고 한 것에 대응한다. 곧 백제의 행보를 겹으로 드러난 “고구려 동정 살피기”에 대해 숨은 목적으로 “중국 엿보기”를 상정한 것이다. 여기에도 백제의 양단 행위에 대한 의혹이 투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612년에는 양제의 고구려 원정이 단행되었고 백제도 군대를 경계에 배치하였다. 따라서 백제의 “실지양단”에는 “수의 원정을 돕는다” 내지 “고구려를 공격한다”라는 외형적 목적과 다른 숨은 목적이 상정되며, 그것은 응당 ‘군사’를 매개로 구현될 것이다. ‘정탐’의 의미를

등을 공격한 사실, 그리고 위 기사에서 “嚴兵於境”이라 한 것은 양국이 접경하지 않으면 설명이 곤란하다. 간혹 해로를 통한 공방을 말하기도 하지만 현실성이 없다. 이것은 접경하지 않았다는 전제에 맞추기 위해 서술한 차원을 넘지 못한다.

54) “실지양단”에 대한 기존 논의는 박윤선, 「백제와 중국왕조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현황과 과제」 『百濟文化』 45, 2011, 84-85쪽 참조.

가지는 607년의 상황과 다르다. 일견 고구려 편에 서서 수와 대적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실성이 없다. 따라서 당시 양단 행위의 상황은 신라 공격 외에는 생각하기 어렵다.⁵⁵⁾ 고구려와의 통화는 양단의 하나인 신라 공격을 유도하는 매개가 된다.

이러한 이해는 바로 이어지는 ③의 내용을 통해 뒷받침한다. 이 구문은 백제와 신라 사이에 전쟁이 발생한 사정을 전하고 있다. 이 구문이 바로 수군을 돕는다고 성언한 것에 대응하는 “실지양단”의 내용인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당시 백제의 외교 행보가 사실 신라를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다.⁵⁶⁾ 앞서도 언급했듯이 백제가 지속적으로 한강이북의 구지를 수복할 지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와 더불어 신라가 차지한 한성의 수복이 요구되었다. 한성과 북한산성을 차례로 확보하면 평양 방면으로 진출하는 발판이 마련된다. 『수서』는 이러한 상황을 끌어와 “신라와 틈이 생겨 매년 서로 전쟁하였다[與新羅有隙 每相戰爭]”라고 서술하고, 이를 근거로 당시 백제의 행보에 대해 “실지양단”이라는 평가를 내린 것이다.

다른 하나는 ③ 부분이 『자치통감』과 『책부원귀』 등에는 실려 있지 않으며, 『삼국사기』 역시 이 구문을 채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상적으로 보면 백제와 신라의 전쟁은 수의 고구려 원정 및 백제의 성언과는 다른 층위의 문제이고, ‘곧이어[尋]’라 하여 시간 차이도 개재되어 있다. 『자치통감』 등에서 이 구문을 신지 않은 것은 이를 감안한 결과로 보인다. 607년 기사가 따로 정리되지 않고 612년 기사 안에 넣어 정리한 것에서 주제에 따라 기사를 모아 구성하는 원리를 엿볼 수 있다.

이것은 역으로 당초 『수서』의 편집 자체가 의도적이라는 심증을 제공한다. 『수서』는 607년 백제의 고구려 원정 요청에 대해서도 고구려와 내통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것은 그대로 612년 상황으로 연장되고 신라 침공이라는 맥락으로 연결하였다. 이렇게 하면 백제의 신라 침

55) 김영하, 「삼국과 남북국의 사회성격」 『한국사(한길사)』 3, 1994, 81쪽.

56) 백제의 대수외교가 고구려의 관심을 멀어지게 함으로써 신라와의 전쟁에 집중하려는 의도였다고 해석하기도 한다.(정동준, 앞의 논문, 2002, 40-41쪽)

공 배후에는 고구려와의 내통이 자리하게 된다. 결국 『수서』는 ‘여제연화’와 이에 따른 신라 침공이 수대부터 이미 배태된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⁵⁷⁾

이러한 심증은 같은 구문이 고려전에도 들어있다는 점에서 더욱 증폭된다.

너) 신라와 매번 서로 침탈하니 전쟁이 그치지 않았다.⁵⁸⁾

위 구문은 앞에 인용한 백제전의 구문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그런데 이 구문의 위치가 다소 의아하다. 이 기사 앞에는 고구려의 연원, 중국 왕조와의 관계 총괄, 도성에 대한 설명이 차례로 서술되어 있다. 그리고 뒤에는 관제와 풍속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수대의 대고구려 관계가 원정을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다.

『수서』는 고구려에 대한 이해에서 ‘여제연화’를 중요한 요소로 다루고 있지만, 실제 이를 뒷받침하는 사적은 없었다. 이에 단독 기사로 전후 문맥과 상관없이 이 구문을 삽입하여 ‘여제연화’의 구도를 구성한 것이다. 백제전에서 드러나듯이 고구려와 백제 사이의 갈등이 깊었음에도 고려전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도 이러한 이해를 뒷받침한다.

57) 백제의 “실지양단” 기사가 모두 『수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백제가 수의 고구려 원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은 데 대한 수의 해석 내지 주장이라고 보기도 한다(박윤선, 「渡日 百濟遺民의 活動」 『숙명한국사론』 2, 1996, 90-91쪽; 박윤선, 앞의 논문, 2009, 254-261쪽). 또한 고구려 원정실패 책임을 백제에 돌리면서 결과론적으로 생긴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정동준, 앞의 논문, 2002, 49쪽). 공통적으로 그 내용이 자료와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이를 통해 ‘여제연화’를 부정하는 입론에 기반하고 있다. 필자 역시 ‘여제연화’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시각에 동의하지만, ‘양단’의 내용은 신라 공격을 포함한 것이며 해당 기사가 부연 설명되는 형태로 볼 때 『수서』를 편찬한 당 태종 때의 인식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점에서 ‘여제연화’설이 신라가 당과의 외교전략으로 구사된 것이고 그것이 『수서』에까지 반영되었다고 본 견해가 참고된다(이호영, 앞의 책, 2001, 356쪽). 다만 필자는 ‘여제연화’설을 제기한 주체는 신라가 아니라 唐이라고 본다. ‘여제연화’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별고를 통해 진행하기로 한다.

58) 『隋書』 권81, 列傳46 東夷 高麗, “新羅每相侵奪 戰爭不息”

결국 고려전의 기존 체제는 고구려의 역사 문화와 중국 왕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데 여기에 의식적으로 신라와의 갈등을 끼워 넣은 것이다. 고려전과 백제전 두 곳에 공통적으로 신라와의 상쟁이 들어감으로써 자연히 ‘여제연화’와 신라 침탈이라는 맥락이 유도된다. 이것은 백제전의 의혹 제거와 표리를 이룬다.

한편 『삼국사기』에서 이 구문을 배제한 것은 『자치통감』과는 다른 맥락이 개제한다. 『자치통감』은 편년체로 구성하면서 612년 원정을 중심으로 사건을 모아 정리하였다. 이 때 해당 사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신라와의 상쟁을 제외하였다. 반면 607년 기사 중 “장이 안으로 몰래 고구려와 통하였다[璋內與高麗潛通]”라는 구문은 수록되었는데, 이는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역으로 백제와 신라의 상쟁이 삭제된 이유를 잘 보여준다.

따라서 『삼국사기』가 『자치통감』의 편집을 따라 해당 구문을 삭제했다고 보면 간단하다. 그러나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대수 외교 기사들은 대개 『수서』 백제전의 것을 채용하였고, 이는 고구려본기의 관련 기사가 『자치통감』을 토대로 한 것과 대비된다. 그리고 『자치통감』에 실려 있는 607년 고구려와의 내통 의혹 기사도 삭제하였다. 따라서 612년 기사에서 신라와의 상쟁을 제외한 것은 『자치통감』을 따랐기 때문으로 볼 수 없다. 이것은 607년 기사와 마찬가지로 ‘여제연화’ 문제를 수대로 소급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수서』가 제기한 “실지양단”은 백제와 고구려 사이의 갈등 및 백제와 신라 사이의 갈등으로 구성되며, 백제의 실질적인 의도가 신라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신라에게는 백제와 상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정작 수에는 고구려 원정을 요청하는 모순적 상황이 연출된다. 고구려와 대립하던 백제가 수의 고구려 원정을 틈타 신라 공격의 수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전략적으로도 불합리하다.

그런데 여기서 백제와 신라의 상쟁 기사를 삭제하면 당시 상황은 백제와 고구려의 갈등 및 신라와 고구려의 갈등으로 구도가 바뀐다. 결국 『수서』는 당시 상황을 백제와 신라의 갈등으로 끌고 가면서 ‘여제연화’

를 덧붙이려고 했다면, 『삼국사기』는 이 시기에 관한 한 고구려와 신라의 갈등을 전면에서 부각시키고자 했던 것이다.⁵⁹⁾

이러한 맥락은 당 태종 때 화해를 종용하러 고구려에 온 相里玄獎에게 淵蓋蘇文이 “隋가 침입했을 때 신라가 고구려의 500리 땅을 차지하였다”⁶⁰⁾라고 한 부분에서 잘 드러난다. 여기에 언급된 상황은 실제로는 진흥왕의 한강 진출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기사는 이를 “수의 고구려 침공”과 연결시켰다. 이것을 결사표와 연계하면, 신라는 수에 고구려 정벌을 청하였고, 수는 이를 받아들여 원정을 단행했으며, 신라는 이를 이용하여 고구려 영토를 차지했다는 맥락이 형성된다. 대수 청병과 수의 고구려 원정을 유도한 백제와 고구려의 갈등이 신라와 고구려의 갈등으로 치환되는 맥락을 보여주는 것이다.⁶¹⁾

이 경우 한 가지 남는 문제는 의혹 내용의 핵심인 “실지양단” 부분이 삭제되지 않고 남은 이유이다. 이것은 구문의 구조와 관련된다. 논리적으로 보면 “실지양단”은 이후 상쟁 구문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문법적으로 보면 백제의 행보에 대한 설명에 포함되고, 신라가 등장하는 후속 구문은 ‘尋’에 의해 시간적 전후로 나뉘게 된다. 『자치통감』에서 ‘십’ 이하의 구문만 삭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삼국사기』 또한 같은 원리에서 내용이 직접 표현된 후반 구문만 삭제하였다. 그 결과 “실지양단”은 신라와의 관련성이 빠지면서 그 의미가 모호해지게 되었다.

이처럼 당 태종 때 편찬된 『수서』는 당시 삼국 관계를 바라보는 기본 시각이었던 ‘여제연화’를 수의 고구려 원정에 투영하여 백제가 고구려와 내통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후 신라와 상쟁을 벌이게 되는 사정을 이어 붙임으로써 백제의 행보를 “실지양단”으로 규정하였다. 고

59) 『수서』의 인식은 결국 백제와 신라의 갈등 배후에 고구려가 있음을 유도하여 고구려에 대한 태종의 인식과 정책을 뒷받침하는 의미를 가진다. 반면 『삼국사기』의 인식은 7세기 전쟁을 신라 주도의 ‘兩國平定’으로 평가하는 시각과 관련된다. 양자 공히 후대의 시각이 투영된 것이다.

60) 『三國史記』 권5, 新羅本紀55 善德王 13년 정월.

61) 상리현장 파견의 배경 및 연개소문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후속 논고에서 자세히 검토할 것이다.

구려와의 내통과 “실지양단”을 연결하면 바로 ‘여제연화’가 구성된다.

이에 대해 『삼국사기』는 신라의 청병으로 수가 고구려를 원정했다는 사적을 수록하면서 당시 상황을 신라와 고구려의 갈등을 축으로 구성하였다. 그런데 『수서』 기사는 당시 상황이 백제와 신라의 갈등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이와 충돌한다. 또한 백제의 청병은 신라의 청병에 사실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여제연화’를 투영하는 것은 곤란하였다. 이에 『삼국사기』는 『수서』가 제기한 의혹 부분을 모두 삭제하였다. 그 결과 『삼국사기』에서 ‘여제연화’는 신라의 대당외교가 본격화되면서 제기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IV. 맺음말

이상에서는 7세기 초반 백제의 대수 군사외교의 실체적 내용 및 이에 대한 사서의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98년 수 문제는 고구려 원정을 단행하였다. 『수서』 제기는 간략하지만 2월의 출정 명령, 6월의 관작 삭탈, 9월의 철군이 명시되어 있다. 고려전에는 원정의 원인이 된 고구려의 요서 공격에 이은 수의 고구려 원정이 정리되어 있다.

『자치통감』은 원정에 참여한 인물들의 열전에서 관련 기사를 추출하여 보충했는데, 이를 통해 당시 전황은 임투관 출발, 장마로 인한 요하의 수위 상승, 보급 차질, 역질, 철군[師還]의 순서로 정리된다. 그런데 고려전에는 수위 상승 내용이 없고, 대신 요하 도달 후 고구려가 사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요하 도달이 철군이 아니라 사죄의 배경으로 변형된 것이다. 실제로는 철군 후 나중에 사죄가 있었고 이로 인해 비로소 원정이 종료되었다[罷兵]. 그런데 고려전은 철군에 대한 언급이 없이 당시 원정으로 바로 사죄한 것처럼 구성하였다. 전투조차 하지 못하고 실패한 당시 원정에 대해 마치 성과가 있었던 것처럼 가공한 것이다. 실제 고구

려의 사죄 시점은 원정 후 처음으로 사신 파견이 나타나는 600년으로 파악된다.

백제에게 대중국 외교는 고구려를 견제하는 중요한 전략이었다. 이에 주로 남조 국가와 통교하면서도 북조 국가와도 관계를 유지하였다. 수가 남북조를 통일하고 598년 고구려 원정에 나서자 이에 편승하여 군도를 청하였다.

이에 대한 『수서』의 기사는 백제의 사신 파견과 군도 요청, 수 문제의 거부, 고구려의 대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 방물을 바치러 간 왕변나와 군도를 요청한 사신이 연달아 나오는데, 기사의 맥락과 사건 정황에서 동일 사신으로 판단된다. 또한 백제의 군도는 수군이 백제 지역에 상륙한 후 북상하는 구도로서 598년 원정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는 백제가 원정 실패를 인지한 후 재개될 원정에 대해 새로운 전략을 제안한 것이다. 백제는 이를 통해 한강이북 및 한성 지역의 수복을 도모할 수 있었다.

백제의 군도 요청은 598년 원정에 연동된 사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고구려의 사죄를 이유로 백제의 요청을 거부했으므로 사신의 도래는 사죄보다 뒤의 일이다. 고구려의 사죄는 600년 정월의 일이며, 이 해 5월 무왕이 즉위하였다. 백제는 위덕왕 사망 후 혜왕과 법왕, 무왕이 연달아 즉위하였고, 중국은 이러한 국왕 교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무왕은 즉위 후 대수외교를 강화하면서 군도를 요청하였고, 중국 사서는 이 사적을 문제의 조서를 통해 구성하면서 598년 원정에 포괄하여 인식함으로써 요청 주체를 위덕왕으로 정리하였다.

한편 고구려는 이러한 백제의 행보에 보복 공격을 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607년의 송산성·석두성 공격이 있었던 것에 비추어 그 사이에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는 국경 충돌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기사를 넣은 근본적인 이유는 뒤에 나오는 607년 원정 요청의 명분을 유도하는 데 있었다.

백제는 607년에 다시 수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 원정을 요청하였다. 당시 양제는 주변 국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돌궐 가한의 입조를

이끌어낸 뒤 고구려에도 친조를 요구하였다. 고구려가 이를 거부하면서 긴장이 높아졌고, 이를 인지한 백제는 고구려 원정을 요청하였다. 백제의 요청은 직공을 받들지 않는다는 원정의 일반적 명분 외에 다른 번국을 잠식하여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제시함으로써 명분을 더해준 것이었다. 이에 양제도 적극 부응하는 태도를 보였다.

양제는 백제로 하여금 고구려의 동정을 살피도록 하였는데, 『수서』는 이에 대해 실제로는 중국을 엿본 것이라는 의혹을 제시함으로써 ‘협사’라는 평가를 유도하였다. 여기에 나오는 “고구려와 통화하였다[與高麗通和]”는 ‘여제연화’설로 연결되는데, 이는 『수서』 찬자의 서술로서 당 태종 때의 인식을 담고 있다.

『자치통감』에는 이 사적이 612년 수의 고구려 침공에 대한 기사에 첨부되어 있고, 『삼국사기』 고구려본기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그런데 백제본기는 『수서』 백제전을 원전으로 하면서 의혹 제기 부분을 삭제하였다. 신라본기에는 원광의 결사표와 함께 신라의 요청으로 고구려 원정이 단행되었다는 내용이 있다. 이 내용은 중국 기록에는 없기 때문에 무왕의 사적이 협사로 규정되면 신라의 행위도 의미가 약화된다. 이에 의혹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같은 시기 신라의 청병에 사실성을 부여한 것이다.

백제는 고구려 원정이 가시화된 611년 수에 군기를 청하였다. 이는 수의 공격 시점에 맞추어 자신도 고구려를 공격하겠다는 의미였다. 앞서는 새로운 전략을 제안하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수의 구원을 요청하는 맥락으로서 고구려의 보복에 대응하는 의미를 지닌다. 양제는 백제의 요청을 수용하여 사신을 보냈는데, 『삼국사기』는 『수서』의 “相知”를 “相謀”로 바꾸어 백제의 능동성을 부각시켰다.

612년 원정이 실행되자 백제는 수를 돕는다는 명목 아래 군대를 경계에 배치했는데, 이 기사에는 “實持兩端”이라는 의혹이 첨부되어 있다. ‘양단’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 외에 실제 목적이 따로 있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신라 공격을 가리킨다. 이것은 뒤에 이어지는 백제와 신라의 전쟁 기사로부터 유도되는 내용이다. 여기서 당시 백제의 행보가 사실상 신라를 염두에 둔 것임도 유추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당초 『수서』의 편집이 의도적임을 시사한다. 607년 기사에 고구려와의 내통을 추가하고 612년 기사에 신라와의 전쟁을 연결한 것은 ‘여제연화’가 수대부터 이미 배태된 것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수서』 고려전에도 신라와의 전쟁 기사가 들어 있는 반면, 고구려와 백제 사이의 뿌리깊은 갈등은 언급되지 않아 ‘여제연화’가 고구려에 대한 이해의 근간임을 보여준다.

『삼국사기』 백제본기는 『수서』 백제전을 원전으로 하면서도 전쟁 기사를 신지 않았다. 이 또한 백제의 요청과 수의 원정을 인정함으로써 신라의 요청에 사실성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이 때 내용적으로 보면 앞의 “실지양단”까지 제외해야 하지만, 두 기사가 ‘尋’에 의해 시간적으로 구분되어 있어 뒤의 기사만 삭제하였고, 이로 인해 “실지양단”의 의미가 모호해지게 되었다.

결국 수의 고구려 원정과 관련하여 『수서』는 ‘여제연화’의 시각을 투영하여 백제의 청병에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는 『수서』가 편찬된 당 태종대의 시각을 반영한다. 반면 『삼국사기』는 신라의 결사표와 청병 사적을 채용하였다. 중국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이 사적의 사실성을 부여하기 위해 백제의 청병을 온전히 인정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백제에 대한 의혹 부분을 삭제하였다.

※ 이 논문은 2021년 8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1년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1년 9월 7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三國史記』 『高麗史』

『隋書』 『舊唐書』 『資治通鑑』 『冊府元龜』 『遼史』

尹秉模, 『高句麗의 遼西進出 研究』, 景仁文化社, 2011

李康來, 『三國史記 典據論』, 民族社, 1995

이강래, 『三國史記 形成論』, 신서원, 2007

李成制, 『高句麗의 西方政策研究 : 北朝와의 對立과 共存의 關係를 중심으로』, 국
학자료원, 2005

李昊榮, 『新羅三國統合과 麗濟敗亡原因研究』 書景文化社, 2001

전덕재, 『三國史記 本紀의 原典과 編纂』, 주류성, 2018

金壽泰, 「삼국의 외교적 협력과 경쟁 : 7세기 신라와 백제의 외교전을 중심으로」
『新羅文化』 24, 2004

김영하, 「삼국과 남북국의 사회성격」 『한국사(한길사)』 3, 1994

盧重國, 「高句麗百濟新羅 사이의 力關係變化에 대한 一考察」 『東方學志』 28,
1981

박윤선, 「渡日 百濟遺民의 活動」 『숙명한국사론』 2, 1996

박윤선, 「위덕왕대 백제와 남북조의 관계」 『역사와현실』 61, 2006

박윤선, 「7세기 전반 삼국의 역관계와 백제의 대당외교 : 백제의 입장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27, 2007

박윤선, 「무왕대 전반기 삼국의 각축과 백제의 외교」 『韓國古代史研究』 53, 2009

박윤선, 「백제와 중국왕조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현황과 과제」 『百濟文化』 45,
2011

박찬우, 「640년대 전반 ‘麗濟連和’의 실상과 唐의 백제 인식」 『史學研究』 141,
2021

방용철, 「麗濟 連和說의 재검토」 『民族文化論叢』 62, 2016

선봉조, 「백제 威德王-武王代 對高句麗 견제의 외교적 함의」 『耽羅文化』 57,
2018

- 梁起錫, 「百濟 威德王代の 對外關係」 『先史와 古代』 19, 2003
- 여호규, 「6세기말-7세기초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 『역사와현실』 46, 2002
- 윤경진, 「4세기 후반 백제의 대고구려 전쟁과 영토의식: 雉壤城湏水에 대한 새로운 비정을 바탕으로」 『韓國史研究』 193, 2021
- 윤경진, 「7세기 초 신라의 對隋 군사외교에 대한 재검토: 圓光 乞師表의 사실성 검증을 중심으로」 『東國史學』 71, 2021
- 尹秉模, 「高句麗의 對隋戰爭과 遼西攻略」 『軍史』 72, 2009
- 李成制, 「嬰陽王 9年 高句麗의 遼西 攻擊」 『震檀學報』 90, 2000
- 이정빈, 「598년 고구려의 요서 공격과 수의 반격 시도」 『고구려-수 전쟁』, 주류성, 2017
- 李昊榮, 「麗濟連和說의 檢討」 『慶熙史學』 9-10합, 1982
- 전덕재, 「『三國史記』 百濟本紀의 原典에 대한 검토: 중국 사서와 국내 자료 인용 기록을 중심으로」 『史學志』 53, 2016
- 정동준, 「7세기 전반 백제의 대외정책」 『역사와현실』 46, 2002

Abstract

Baekjae's military diplomacy toward Sui dynasty(對隋)
in the early 7th century and the perception of
historical books(史書)

Yoon, Kyeong-jin

This article reviews the reality of Baekjae's diplomacy toward Sui (隋) dynasty in the early 7th century and the perception of historical books about it. Sui dynasty went on the expedition to Goguryeo in 598. However when its' troops arrived at the Liao-ho river(遼河), they withdrew without outcome because of water level rising and setback in supply. Nevertheless, in Biography Goryeo(高麗傳) of *Sui-shu*(Book of Sui : 隋書), the descriptions were edited as if Goguryeo apologized when the troops of Sui reached the Liao-ho river. It was in accordance with the intention of reveal outcome of the expedition.

Baekjae wanted to become a guide for the troops as it took a ride in the expedition of Sui. It proposed a new strategy in line with the expedition which would be resumed. The apology of Goguryeo and request of Baekjae are all believed to have been in 600 when considering development of the contents. In the year of 607, Baekjae requested expedition to Goguryeo once again. Emperor Yang of Sui accepted the request and ordered to take a close look in movements of Goguryeo.

In *Sui-shu*, it was described that Baekje did a fraudulent act and tried to read Sui dynasty. The writer of *Sui-shu* raised suspicions about Baekje's actions from the viewpoint that Goguryeo and Baekje was in

solidarity. In addition, when the expedition to Goguryeo was visualized in 611, Baekjae asked participation in the operation and in the year of 612, when the expedition was executed, it aimed to do direct military action. In response, Sui-shu raised suspicions that the outside of Baekje was different and the inside was different. It was based on the conjecture that Baekje attempted to attack Silla at that time.

Samguk-sagi(The Chronicles of the Three States: 三國史記) extracted articles of *Sui-shu* about situation at that time, but it deleted all parts of suspicion. It was to give realism to Silla's historic sites about asking for a dispatch of troops. They extracted passed-down sources of same period and put them on record.

keywords :

Baekjae's diplomacy toward Sui dynasty, *Samguk-sagi*(The Chronicles of the Three States: 三國史記) *Sui-shu*(Book of Sui : 隋書), Liao-ho river(遼河), the viewpoint that Goguryeo and Baekje was in solidarity(麗濟連和)

